20201108-1318□-□□_□□□□□ 20. 11. 6. □□ 7:40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0년 11월 8일(주일) 제1318호

온누리공동체가 뜻깊은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온라인 맞춤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영등포구로공동체의 사전 리더십 회의(왼쪽), 이촌공동체가 진행한 화상 생활전도세미나(오른쪽).

온누리공동체, 전도로 한 해 마무리한다!

한강, 영등포구로, 이촌, S브릿지, 브릿지33+ 12월 12일~20일 온라인 맞춤전도집회 및 특별예배

온누리교회 5개 공동체(한강, 영등포구로, 이촌, S브릿지, 브릿지33+)가 연말을 아주 뜻 깊게 보낼 수 있는 공동체별 온라인 맞춤전도집회 및 특별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한강공동체는 믿지 않는 가족을 대상으로 12월 12일(토) 유튜브, 줌(ZOOM)으로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행복터치'다. 가수 김영우(스윗소로우), 색소폰 연주자 송솔나무, 조셉 붓소(길거리 찬양사역자)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로공동체는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지인 등을 대상으로 12월 12일(토) 오후 3시 유튜브(사전 녹화)로 전도집회를 연다. 배우 오미희 권사, 장광 장로, 전성애 권사, 트로트 가수 신인선 등이 출연하고, 여성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이촌공동체 전도집회는 12월 12일(토) 오후 7시 유튜브 라이브로 막 오른다. '보이는 라디오-12월의 사랑'을 주제로 개그맨 표인봉, 트로트 가수 신인선, 이촌레이디스(남편 전도를 소망하는 아내들이 중심이 된 특별팀) 등이 출연한다.

S브릿지공동체는 '크리스마스 축복(Christmas Blessings)'을 주제로 온라인 맞춤전도집회를 준비중이다. 한 번도 교회에 다닌 적 없는 사람, 가나안 성도(믿음은 있으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도), 복음과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영상과 SNS를 활용해서 전도할 예정이다.

브릿지33+공동체는 12월 20일 '함께'를 주제로 특별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안개 순원(순이나 공동체 소속이 안 된 지체)과 미신자들이다. 브릿지33+공동체 특별예배에서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간증하고, 브릿지33+공동체 지체들이 특순을 한다.

윤마리아 목사(브릿지33+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공동체를 이탈한 성도들이 많다"면서 "이번 공동체 맞춤전도집회 및 특별예배는 외롭거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215-3214, 36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느헤미안 프로젝트 1기 펀딩

1만선교본부, '스타트리 협동조합' 후원

1만선교본부가 느헤미안 프로젝트 1기 펀딩을 시작했다. 느헤미안 프로젝트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한 단체, 개인, 이주민 등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선물해서 사회 곳곳에 느헤미안을 세우는 캠페인이다.

느헤미안 프로젝트 1기에서는 스타트리 협동조합을 후원한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에서는 무슬림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느헤미안 프로젝트 1기 펀딩 수익금으로 스타트리 협동조합에 빔프로젝트와 기타 집기를 후원할 예정이다.

느헤미안 프로젝트 사이트(https://nehemiahnproject.imweb.me)에서 펀딩에 동참할 수 있다. 펀딩 금액은 2만원, 4만원, 6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느헤미안 프로젝트 펀딩에 참여하면 더치커피를 지급한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은 온누리M미션에서 발족한 단체이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 비즈니스 교육,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이승현 총무 010-6408-9851

CGNTV 정기후원약정 캠페인 3천명 동참

CGNTV 후원자 3만7천여 명

지난 11월 1일 실시한 CGNTV 정기후원약정 캠페인에서 온누리교회 성도 3천명이 신규, 증액, 일시 후원을 약정했다. 현재 CGNTV 정기후원자는 총 3만7천여 명이다. 정기후원금은 하나님이 CGNTV에 주신 미디어 선교를 완수하는 데 전액 사용한다.

CGNTV가 한국 교회 미디어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선보이는 미디어 라이브러리 '퐁당', 다양한 콘텐츠 제작, 영상제작 노하우 전수 및 보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엔젤트리 사연접수 11월 8일 마감

올해 엔젤트리 사연접수가 11월 8일(주일) 마감된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하지 않는 성도들도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얼마든지 선물할 수 있다. 11월 14일부터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되는 엔젤트리 사연을 뽑아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전달하면 된다. 일주일 이내로 사연대상자에게 선물을 배송하고, 사회선교본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문의: 02-3215-3434

기획_ "태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4면 **특집_** 코로나19가 가져온 세대별 아픔 5면 **선교역사_** 조선 선교 그리고 선교사 7면

20201108-1318□-□□_□□□□□ 20. 11. 6. □□ 7:40 Page 2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무신론 신학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존재론, 기원론과 인식론을 다루다 보면 모든 세계관에 종교적 선언이 있음을 알게 된다. 기독교와 이슬람에서는 "태초에 신이 계셨다", 인본주의, 공산주의와 포스트모던에서는 "태초에 신이 없었다", 뉴에이지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은 그 외 몇 가지 요소로 인해 종교적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주장한 변증법적 유물론은 사물에 신의 속성을 부여한다. 구스타프 A.베터는 그의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지극히 높은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세상은 지속적인 발전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은 무한을 향해 나아간다. 따라서 유물론에서 물질에 가해지는 무한한 변증법적 변화는 물질에 정신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신성마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인본주의자 버트랜드 러셀도 마르크스주의의 종교성을 인정하였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종교로부터 온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들의 교리(이념)에 근거하고 있고, 자신들의 신적 역사(변증법적 유물론)와 메시아(마르크스), 그리고 사제(공산당원)를 갖추었다. 어떤 교리를 종교로 인정하는데 그 이상 더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들은 독재자처럼 자신들의 이념에 어긋나는 모든 세계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고 핍박한다. 공산주의의 설계자인 마르크스는 종교(기독교)에 대해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무자비한 세상의 본질이며, 영혼 없는 상황의 핵심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에게 환상의 행복(종교)을 폐지해야 진정한 행복(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이념을 현실에서 실행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합(소련)을 설립한다. 레닌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노동자들이 신화 속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영적 독주'에 취해 당면한 경제적인 가난을 잊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의 신학은 한마디로 독단적 무신론이다. 신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레닌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스탈린이나 후르시쵸프 역시 "종교라는 아편의 마술적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공언하였다. 교회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했고, 믿음을 지키던 성직자와 신도들이 투옥되거나 사형을 당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배급표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

한때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무신론적인 주장을 약화시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행해진 바 있었다. 순진한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을 해방신학운동과 같은 친공산주의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과학적 무신론'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신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과학을 앞세워 초자연적인 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 공산주의 강령이 과학적이며 유물론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선전하고, 무신론적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를 혼합시키는 그들의 꼬임에 말려들고 있다. 기독교 좌파로 알려진 일부는 마르크스주의의 특정 신조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마르크스를 아모스 선지자에 비교하였다. 또 메리놀회 사제들, 해방신학자들, 예수회 수도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회주의 편에서 그들과 협조한 바 있다. 이들 대부분이 그들의 통일전선 전술에 말려들어 이용만 당하고 제거된다.

루카치와 그람시 등에 의해 주장된 문화주도권(cultural hegemony), 특히 성문화 주도를 통한 혁명이론은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 마르크스주의 두뇌집단은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 기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초기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실패를 비판하며 기독교의 핵심가치인 '가정-성-생명'의 윤리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가정, 교회,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 때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투쟁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성문화혁명의 중심사상은 젠더이데올로기로 요약될 수 있는데, 개개인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을 인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발이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의 순간 XX, XY 성염색체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남녀 두 가지 성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거나 양성 이외의 다른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학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무신론이라는 신학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학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젠더이념인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무신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의 윤리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거나 동행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다. 무신론적 학교 교육과 젠더이념을 통해 세뇌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무신론으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는 동안 학교를 통해 무신론으로 세뇌당하면서 동성애에 포용적이고 젠더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배우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침묵함으로써 빼앗긴 교육의 방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묵상: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무신론이 아닌지 대화를 통해 진단해 보자.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합시다!

우리 부부는 캠퍼스 커플이다. 열렬히 사랑했고, 로맨틱한 연애 끝에 오직 사랑 하나만 가지고 결혼했다. 멋지게 연애했으니 결혼생활도 틀림없이 행복하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연애할 때는 늘 듬직했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왜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어린아이처럼 보이는지…. 나는 남편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기 시작했다. 그때 남편이 매일 하던 말이 있다.

"당신이 내 선생이오? 왜 날 가르치려고 들어요?"

남편의 말에 나는 "내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요! 다 당신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라고 응수했다. 정말 남편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고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남편은 "당신은 골치 아픈 여자야"라며 대화를 거부했고, 갈등이 생기면 보통 3일은 나와 눈도 맞추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보통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화를 내거나 침묵한다. 상처가 많은 나는 주로 화를 내는 타입이었지만, 의지가 굳고 별 상처가 없었던 남편은 주로 침묵을 택했다. 나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다가갔고, 그럴수록 남편은 뒷걸음치며 우리 관계는 더욱 나빠졌다.

나는 우리 부부의 갈등 원인 중에서 90%는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혼의 고비를 넘기고, 전공을 바꿔 가정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를 맺는 데 서툴렀고, 관계 위에 싹트는 사랑에도 남자와 여자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엡 5:33).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벧전 3:7).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코드가 다르다. 남편의 사랑의 코드는 존경(Respect)이고, 아내의 사랑의 코드는 돌봄(Care)이다. 연애할 때는 서로 존경하고 돌보면서 사랑이 싹트지만, 결혼하고 한 공간에 들어와 살면 수용력이 좁아지면서 남편은 아내를 돌보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 존경에는 인정과 칭찬이라는 코드가 들어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 격려와 인정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실제로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존재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기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는 두 번이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남편을 '주'라고 칭하며 존중했다. 아브라함도 많은 단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사라는 단점보다 아브라함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정은 영적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그러다보니 가정 안에서 서로의 장점을 보기가 어렵다. 많은 아내들의 고민이 살다보면 남편에게서 존경할 만한 점이 눈에 띄지 않고, 또 조금만 인정하고 칭찬하면 남편이 기고만장해지고 우쭐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에게서 칭찬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내의 영성이다. 남편의 기고만장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하자. 그러면 당신의 남편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돌보고 보호할 것이다. 아내의 칭찬과 존경이 남편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으로 세울 수 있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20201108-1318□-□□_□□□□□ 20. 11. 6. □□ 7:40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말씀 앞에서 울고 웃다

느헤미야 8:1~10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참된 부흥을 사모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붙잡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큰 충격이 그 영혼에 임하고, 그 충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변화됩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통과한 이후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부흥의 역사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불을 붙여 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을 붙여 주신 사건입니다. 존 녹스와 요한 웨슬레를 통하여 그 불이 유럽 전역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 전 미국에서 불타올랐습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은 말씀사경회에서 말씀의 불이 붙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갔던 것이 바로 평양대부흥운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부흥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단지 '부흥회'라는 간판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모습이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이요, 사모해야 할 부흥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였을 때 일어나야 할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이는 성벽을 백성들과 함께 완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대한 갈망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에 대한 갈망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 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1~2절).

성벽 재건 공사와 인구조사가 끝나고 일곱째 달이 되었습니다. 유대 월력은 순서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산월, 기슬르월 등은 바벨론의 월력입니다. 후에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유대 달력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이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의 기후로 말하면 9~10월 가을입니다. 유대 월력에서 우리의 신정과 같은 날이 일곱째 달 1일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을 하루 종일 길게 붑니다. 이것은 장차 일곱째 달 10일에 대속죄일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대속죄일을 기다립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새해는 죄를 대속 받는 대속죄일로 시작합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대속죄일이 다가오는 것을 알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죄사함을 받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대속죄일 직후에 오는 첫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된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두 초막에서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집에서 나와서 들판이든 어디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합니다.

일곱째 달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함께 모인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 느헤미야의 지시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백성들이 힘을 합쳐 이룰 수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갈망은 지도자가 지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 말씀에 귀 기울이기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주리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암 8:1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의 시대입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말씀이 고전으로만 여겨지는 시대, 말씀을 듣지 못한 굶주림과 목마름의 시대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의 시작은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물 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3절).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7시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시간동안 율법을 경청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려지는 말씀 자체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읽는 것은 자꾸 내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리에서는 오랜 시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자리는 몇 분도 지겹고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이 때 백성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낭독되는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루함이 없다는 것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순종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음성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듣는 귀'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까닭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듣는 귀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강단에 서고 좌우에 13명의 레위인들이 섰습니다. 에스라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스 7:10).

에스라가 부흥회 도구로 쓰임 받은 이유는 율법 지식이 정통할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6~7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율법을 통한 부흥이 어떤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내용을 반복하며 설명하는 일종의 문학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 뒤에 보충을 해 가듯이 부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고 좌우에 13명의 레위인들이 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부흥의 중심, 경배와 강해

부흥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말씀을 설명하는 강해가 있습니다. 이 시대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첫째, 율법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5~6절).

백성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 책을 펼칠 때 모두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멘, 아멘"하며 말씀에 응답했고, 땅에 바짝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때로는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참된 순종의 자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큐티시간에도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순종의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14면에 계속〉

20201108-1318□-□□_□□□□□ 20. 11. 6. □□ 7:40 Page 4

여성 목회자가 바라본
낙태죄 개정안의 문제와 대안

"태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한 여성 목회자의 통회(痛悔) 그리고 제안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정부가 지난 10월 7일 입법예고한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낙태죄 개정안) 입법시한이 올해 말(12월 31일)까지다. 입법시한 두 달여를 남겨놓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더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이기복 목사(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 온누리교회 협동목사)가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내왔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백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도 함께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이기복 목사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 생명을 주는 나무 이사장)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소중한 생명들의 태어남을 계획하시며 멈추지 않으신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생명들을 잔인하게 죽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모세의 출생을 막기 위해 애굽 왕은 히브리 남자 유아들을 모두 죽였다.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두 살 아래 사내아이들을 학살했다. 아말렉 족속인 하만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했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은 6백만의 유대인을 죄책감도 없이 학살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낙태는 현대판 몰렉과 그모스

구약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음란과 음탕을 조장하고, 포악하였다. 특히 몰렉과 그모스는 '유아인신제사'를 요구했다. 자신의 아이들을 불로 뜨겁게 달구어진 그모스의 내민 손 위에 올려놓고 잔인하게 태워 죽였다. 하나님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8:21)"고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 족속들의 관습과 문화에 함몰되어 자녀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다. 유아인신제사의 목표는 세 가지다. 첫째, 풍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다. 둘째는 전쟁에서의 승리,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셋째, 성적 음란을 누리기 위한 의도가 분명 있었다.

우리는 고대 유아인신제사 문화를 악하고 무식하고 미개한 사람들의 행위로 여긴다. 그러나 현대의 낙태법도 들여다보면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과거에는 태어난 아기들을 죽였지만, 지금은 고도로 발달한 의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뱃속의 아기들을 죽이고 있다. 성적 해방이라고 부르는 쾌락과 음란을 위해 아기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의 자유를 극렬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적자유, 비혼, 비출산, 피임, 낙태를 주장하면서 성의 해방을 외치고 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법칙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몰렉과 그모스의 유아인신제사의 현대판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던 1960~1980년대에는 국가가 산아제한이라는 정책을 적극 실행했다.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로 도배를 했다. 당시 낙태는 산아제한을 위한 의술로 알았을 뿐이다. 국가의 목적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뿐이었다. 당시 국가는 GNP를 높이려는 목적뿐이었다. 경제적 부요함을 획득하려는 근시안적 정책이었다. 그것이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주위에 많은 친구들과 가정들이 하나같이 두 명 또는 한 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 이상 낳는 것은 무식한 것이라고 세뇌당해서 수많은 낙태를 저질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 역시 이 자리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려고 한다. 당시에는 태아가 살아 숨쉬고 있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태아가 3주만 되어도 심장박동이 감지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나 역시 끔찍한 낙태를 저질렀다.

낙태는 먼지 털어내듯이 지워버리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태어났으면 아들이었을지 딸이었을지, 어떤 아이가 되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후회를 넘어 처절한 회개를 거듭하게 된다. 낙태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끔찍한 살인인 것을 어찌 몰랐을까.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결코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함을 처절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낙태를 행한 성도들과 가정에게 함께 회개를 통한 회복으로 나아가자고 권유하려는 마음에서다.

교회만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당시 나는 너무나 무지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도 나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나라가 자녀를 낳지 말라고 권장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이 땅에 충만하도록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목사님들이 선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침묵했거나 외면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나라가 태아를 몇 주에 죽일 것인가를 논하고 있는 끔찍한 낙태죄 개정안에 대해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을 두려워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목소리를 합해야 한다. 물론 교회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지식인과 지도자들도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회의 기독인들에게 도전하고 직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가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구 자연감소라는 심각한 현실로 접어들고 있다. 2019년 10월 3일자 인사이트 기사에서는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도 악한 낙태죄 개정안을 추진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출생하는 아이들보다 뱃속에서 낙태당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정책자들이 과연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아무리 보아도 다른 곳에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다. 언론도, 드라마도, 정부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다. 이제는 교회만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교회는 태아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영상과 교육을 통해 담대하게 알려야 한다. 영적으로 보아도 이슬람은 열 명씩 자녀를 낳는데, 우리는 한두 명만 낳는다면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무슬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벌써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교회는 다자녀의 축복을 알리고 격려하며 선전해야 한다.

나는 보상하는 마음으로 미혼모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 경기도 수지에 위치한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기관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곳에는 현재 약 40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과 양육을 받고 있다. 국가의 보육기관보다 시설은 왜소하지만 사랑과 스킨십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다. 사랑스런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찬양소리를 들으면 감동이 있다. 미혼모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줘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하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있다. 나라는 미혼모들이 안전하게 아기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익명출산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버려진 아기들을 소중하게 보살피고 키워내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과 더불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오랫동안 생명운동을 펼쳐왔던 가톨릭과 기독교는 물론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입양가족연대, 미혼모단체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단체이다. 결성된 기간은 이제 2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대한민국 생명운동의 최전선에 서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넘어야 할 벽이 크고 높다. 그러나 모두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생명의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줄 믿는다. 우리나라가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로 거듭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 모두 목소리를 합쳐 행동하기를 기도한다.

20201108-1318□-□□_□□□□□ 20. 11. 6. □□ 7:40 Page 5

코로나19가 가져온 세대별 아픔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부채탈출119, 멘토 등 교회의 자원을 청년들에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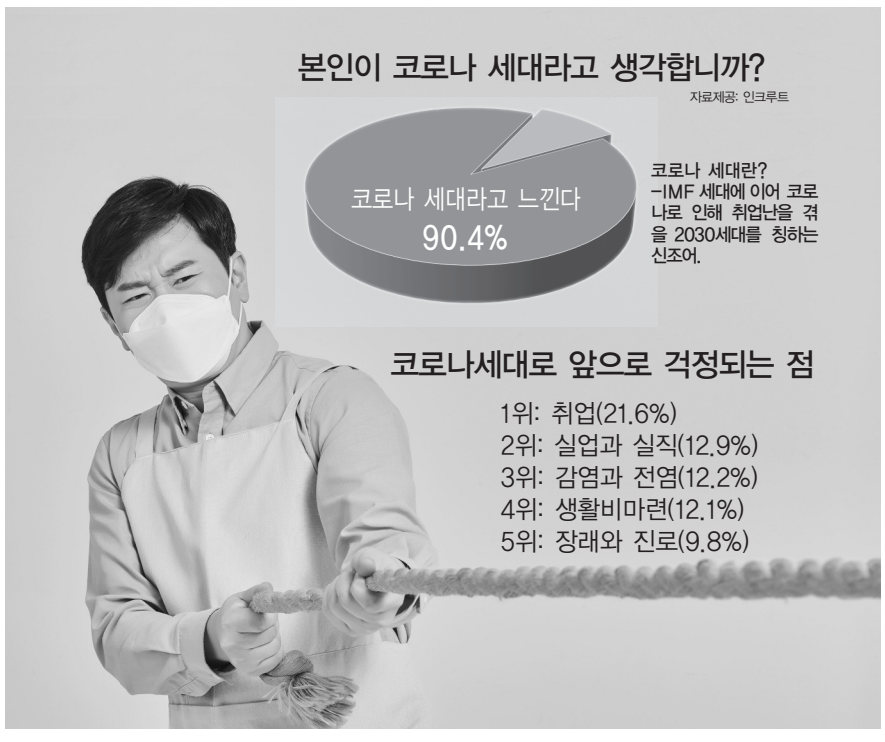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생활 전반에 수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참으로 다양하다.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더 좁아진 취업 시장 탓에 울고 싶은 심정이다. 중장년들은 갑작스러운 실직과 앞당겨진 은퇴에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노인들은 더 깊숙이 파고든 외로움과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세대별 아픔'을 주제로 각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드러내고, 교회가 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세대는 청년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30세대 코로나19 감염보다 취업 걱정 앞서…."

코로나19 사태 속 2030세대의 어려움을 다룬 어느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응축되어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상당하다. 취업은 물론이고, 실업과 실직, 생활비 마련, 진로 문제 등 걱정거리가 태산이다.

지난 6월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2030세대 성인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세대(코로나로 인해 취업난을 겪을 2030세대를 칭하는 신조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이 코로나 세대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청년 90.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 세대청년들은 '취업(21.6%)'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실업과 실직(12.9%)', '감염과 전염(12.2%)', '생활비 마련(12.1%)', '장래와 진로(9.8%)'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 생계, 코로나 블루까지 더 아프고 더 힘든 청년세대

청년들의 걱정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기사 제목들만 봐도 암담하다. '고용절벽', '취업난', '코로나19 실업 양극화' 등 2030 청년세대의 어두운 현실이 그대로 녹아있다. 코로나19는 특히 청년들의 취업문을 더 좁게 만들었다. 지난 10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9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358만2,000명, 30대 취업자 52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0대는 19만8,000명, 30대는 28만3,000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위기감은 더 크다. 지난 10월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4,158명을 대상으로 '2020년 대학생 취업인식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올해 대학 졸업자의 예상 취업률이 44.5%에 그쳤다. 이는 대학 졸업자 55.5%가 취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올해 대학 졸업자의 예상 취업률은 2014년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실제 취업률 62.6~64.5%보다 20%나 낮은 수치다. 올해 대학 졸업자들이 얼마나 큰 위기를 겪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또 다른 돌파구를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S자매(24세)는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꽁꽁 닫혀버린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대신 대학원 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S자매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학원가와 공연장을 보면서 일찌감치 취업을 포기하고 교육대학원 진학을 준비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는 학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공연들도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게 부담이 됐습니다. 대학원 진학이 진로 고민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에만 매달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없이 공부를 좀 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L자매(32세)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된 지난 8월부터 간신히 버텨오던 학원 사정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해고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날마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원장선생님이 한숨을 쉬실 때마다 불안하고 눈치가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당장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회사에서 해고당하다시피 퇴직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폐업 등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5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년들이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 총액이 14조2,02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한도 총액 16조4,105억 원과 맞먹는 수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발생한 부동산대란 등은 청년세대를 더 큰 아픔으로 내몰고 있다. 오죽하면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받는다는 뜻)', '빚투(빚내서 투자한다는 뜻)'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까.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들의 무리한 대출은 가계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청년들이 이토록 큰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에 병을 앓는 경우도 상당하다. 더 좁아진 취업 시장, 어려워진 생계, 줄어드는 대인관계 탓에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blue) 합성어)'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20대 우울증 진료 건수가 9만3,455건으로 지난해 7만2,829건에 비해 28.3%나 늘었다. 30대 우울증 진료 건수 또한 작년 6만7,394건 대비 14.7% 증가해서 올해는 7만7,316건이나 된다. 2030 청년세대의 자해 진료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가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가 213건으로 지난해 118건에 비해 80.5% 증가했다. 30대는 161건으로 전년 86건 대비 87.2%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교회가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교회가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보다 취업을 더 걱정하고, 실직과 폐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은 대출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교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청년들을 돕는 방법은 온누리교회가 가진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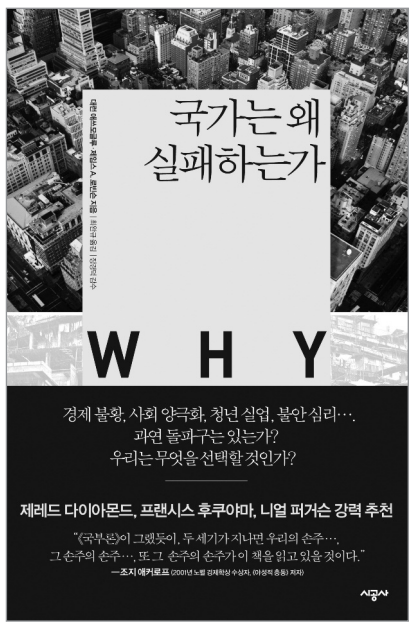
온누리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는 사역과 캠페인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교회에 봉헌된 비전헌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시급했던 청년 62명이 큰 도움을 받았다. 이와 같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더 많아져야 한다. 또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채탈출119'와 같은 사역도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채탈출119는 전문기관과의 재정 상담 및 법률 자문을 통해 개인 및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부채탈출119는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관련기사 10면〉.

이 외에도 대학청년부 공동체별로 배치된 멘토들이 청년들에게 삶의 지혜를 제공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은 온누리교회 상담실 문을 두드리면 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01108-1318□-□□_□□□□□ 20. 11. 6. □□ 7:40 Page 6

책 읽어주는 목사

만군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저
| 시공사 | 25,000원

미가서 강해를 위해 자료를 찾던 중에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오늘 소개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이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70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이다. 처음에는 신앙서적이 아닌 사회과학 분야의 책이라 구입을 망설였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책을 덮는 순간 소장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는 터키 출신 경제학자다. 서양 중심의 사관을 극복하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국가의 흥망성쇄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자료를 내 놓았다.

국가는 왜 망할까? 저자의 주장은 간단하다. 잘못된 정치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성패요인은 지리/문화적 요인, 정치/역사적 요인 등 다양하지만 모든 자료들을 검토해 봐도 결론은 하나다. 정치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 경제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착취적 제도와 포괄적 제도이다. 착취적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반드시 퇴락의 길을 가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용적 제도를 갖게 되면 번영의 길을 가게 된다. 착취적 제도란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의 자원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 제도가 결여된 특징을 갖는다. 모든 공산국가, 독재정권,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나라는 17~18세기 유럽의 식민지였다. 저자는 이들이 아직도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를 "식민지 시절에 뿌리깊이 박혀있던 착취적 정치성향을 버리지 못해서 독립 이후에도 저개발 상태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포용적 제도를 탑재한 나라들은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서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이다. 여기에는 중국이 빠져 있는데, 중국은 인구가 많고 돈도 많지만 착취적 정치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포용적 제도에서는 다원주의적 정치권력이 골고루 분배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존재하며, 안정적인 사유재산을 추구할 수 있는 포용적 시장경제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착취적 제도에 속한 나라는 소수 엘리트층이 부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가 결탁해서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혁신을 위한 인재등용이 아닌 같은 이념과 파벌로만 공직을 채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분기점(독립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위한 포용적 구조를 선택하지 못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독재정권에 권력을 주기 때문에 착취적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 나라의 모습을 한탄하며 "아무리 일해도 착취당해 얻은 것이 없다! 통치자, 재판관, 권세자가 함께 결탁했다! 정직하고 경건한 자를 찾을 수가 없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미 7:1~6)고 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착취구조에 해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에 적용되고 있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번영의 근원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고, 창조섭리를 거부하며, 탐욕과 독선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도 멸망하고 공중분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 이후 포괄적인 제도를 선택하게 되었고, 현재 번영의 도상에 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착취적 구조로 가면 미가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

허원희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그 이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
김복유 저 | 두란노 | 11,000원

"네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러워도 괜찮아 네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내게 와 내게 와 내게 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 줄래 사랑해 사랑해"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의 저자이자 싱어송라이터 김복유가 부른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의 가사다. 저자가 무명시절 외로움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곡이다. 이 곡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선물했다.

김복유가 이번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글로 선물한다.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는 저자가 어려웠던 어린 시절부터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까지, 방황하던 청년기를 지나 목소리로 주님을 전하는 찬양사역자가 되기까지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이야기를 솔직하고 유쾌하게 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달라진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김복유는 스토리텔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싱어송라이터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잇쉬가 잇샤에게', '전부가 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등의 싱글앨범을 발표했다. 현재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리허설

깊이 들어가 어디에 서려나
높이 올라 무얼 내다보려나
무수한 리허설을 거쳐 나가
어디서 무엇을 잡으려는가

심우주의 지평에 서서
출렁이는 중력파를 타고
빛의 원천에 이르게 될
장엄한 연주를 바치려서리

리허설은 끊임없는 씨름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끈덕진 애착과 교만을 지우며
승리를 이루어 가는 과정

– 이원로 장로의 시선집 〈감사와 공감〉 중에서

20201108-1318□-□□_□□□□□ 20. 11. 6. □□ 7:40 Page 7

조선 선교 그리고 선교사 2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로제타, 윌리엄 홀 선교사 가족의 눈물겨운 조선 사랑

성주명 장로
(여의도공동체, 이화의료원 내과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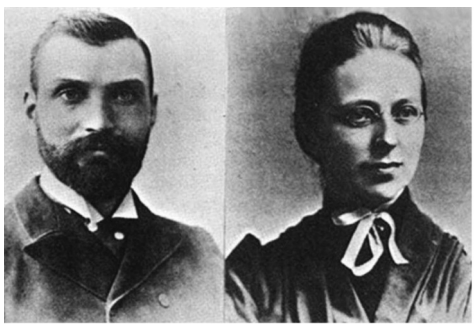
로제타 선교사는 27세 때인 1892년 6월 27일 의사이자 선교사인 윌리엄 홀(William Hall)과 결혼한다. 윌리엄 홀 선교사는 1893년 3월 14일 동대문에 '볼드윈 진료소(Baldwin Dispensary)'를 열었고, 이는 1912년 'Lillian Larris Memorial 병원'으로 통합되어 거듭나게 된다. 로제타 선교사는 정동에 위치한 보구여관과 볼드윈 진료소를 오가며 환자들을 돌보게 된다. 그녀는 그때의 경험을 1914년에 쓴 글 〈조선에서의 의료 일〉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근무한 정동에 위치한 보구여관에서 두 사람이 나르는 가마를 타고 다녔다. 약 3마일의 거리였고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 가마를 나르는 남정네들은 최소 2번 정도는 쉬어가며 나를 이동시켰다. 이때 나는 지저분한 진흙탕과 벌거벗은 아이들로 인해 차마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하곤 했다. 마치 뉴욕에서 가마를 타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듯한 상상이었다. 그러나 길거리의 지독한 냄새가 뉴욕에 있는 나를 꿈에서 깨우게 했다."

윌리엄 홀 선교사는 원래 중국선교를 계획했으나 결혼 이후 북한선교에 온힘을 다하게 된다. 그는 평양에서 진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 그 중 한 사람이 김창식이다. 김창식은 훗날 조선 최초의 감리교 목사가 되는 인물이다. 윌리엄 홀 선교사 가까이에서 사역을 도왔던 인물이다. 그는 기독교 전파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평양관원과 도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매를 맞고 투옥되었다. 관원들은 윌리엄 홀 선교사 앞에서 자주 김창식을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고, 단두대에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윌리엄 홀 선교사가 평양을 떠나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윌리엄 홀 선교사는 굴하지 않고 박해를 참아내며 의료와 말씀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을 로제타 선교사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으로 인해 투옥되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전파 사역을 한 것이 연계가 되었다."

1894년 5월의 일기는 로제타 홀 선교사 부부가 평양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쉴 새 없이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았다. 몰려온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친 오후에 홀 부부가 낳은 6개월 된 아들 셔우드가 신기하게 생겼다며 평양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 구경꾼들이 마당을 꽉 채우자 로제타 선교사는 그들을 10명씩 그룹으로 5분씩 수 시간 동안 자신의 아들 셔우드를 구경하게 했다. 아기를 보여주기 위해 안방도 보여줘야 했다. 개인적인 미국 문화에서 잘 모르는 제 삼자에게 연약한 아기와 침실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실상 큰 희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때는 셔우드가 넘어져서 치아가 두 개나 부러진 다음 날에도 평양의 구경꾼들이 원하면 아기와 안방까지 보여주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로제타(오른쪽), 윌리엄 홀(왼쪽) 부부.

◀ 1895년 미국에서 자녀 셔우드, 마가렛, 박에스더(김점동) 부부와 함께.

1894년 6월 27일 결혼 2주기 때 로제타 선교사는 "남편과의 하루가 남편 없는 1000일보다 낫다"며 더 좋은 날들이 미래에 올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훗날 다가올 혼인 50주년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윌리엄 홀 선교사는 1894년 7월과 8월 너무 무리하게 평양에서 사역에 매진하다가 발진티푸스(Typhus fever)에 걸려 고열과 탈수, 영양부족으로 사경을 헤매게 된다. 서울로 이송되었으나 아들 셔우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로제타 선교사 품 안에서 소천하고 만다. 1894년 11월 27일 34세의 젊은 나이였다. 로제타 선교사의 일기 4권은 여기서 급작스럽게 끝이 난다.

그녀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

로제타 선교사는 남편의 급작스런 죽음 이후 1894년 12월 조선을 떠난다. 셔우드와 뱃속에 있는 마가렛을 데리고 김점동, 박유산 부부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1895년 1월 도착해서 딸을 낳는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로제타 선교사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평양 기홀병원(Hall Memorial Hospital) 설립 기반을 닦는다. 로제타 선교사는 3년 만인 1897년 11월 다시 조선에 돌아오고, 한국 맹인들을 위한 최초의 점자책을 만든다.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딸 마가렛이 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때 로제타 선교사의 슬픔은 남편을 잃은 슬픔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아빠가 너무 딸을 그리워하여 데려갔다"고 기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후학양성에 대한 로제타 선교사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서울과 평양의 의학강습소와 East Woman's 병원 등 여러 병원들을 설립한다. 기홀병원(1897년), 광혜여원(1898년), 맹학교(1900년, 한글 점자 교과서 발행), 농학교(1910년), 동대문병원(1921년), 조선 여자 의학강습소(1928년) 등 많은 기관을 세워 후학 양성을 통한 한국 근대 의료의 기반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그 결과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와 한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그 의료와 의학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1925년 그녀의 아들 셔우드가 의사가 되어 어머니가 사역하는 한국에 오게 되었다. 1932년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기도 한다. 1928년 서울의 의학강습소가 경성여자의과대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로제타 선교사는 68세에 43년 동안 조선에서의 그 많은 사역을 뒤로 하고 선교사의 삶을 마무리 짓게 된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내다가 85세에 소천한다. 로제타 선교사의 유해가 양화진 외국인 묘소에 남편과 딸과 함께 안장되어 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필자는 1997년부터 이화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로제타 선교사에 대해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 〈로제타 홀의 일기〉 영어판 4권을 꼼꼼히 읽으면서 무엇이 로제타 선교사를 여러 면에서 어둡고, 열악했던 조선에 오도록 했는지 그 궁금함을 풀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병든 자, 포로된 자,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눈먼 자들을 군림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던 예수님 때문이었다. 로제타 선교사는 뉴욕에서 여의사로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근대식 병원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었건만 구한말 악취가 나는 정동과 동대문 길을 불편한 가마를 타고 다니며 환자들을 돌봤다. 사랑하는 남편을 젊은 나이에 떠나보내고 딸도 불과 3살 때 장염으로 죽었건만 조선과 조선인 특히 여성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신의 일평생을 바치는 사랑의 희생과 순종을 했다.

필자는 2004년 이후 이화의료원의 여러 동료들과 힘을 합해 'EMC(Ewha Medical Care)'라는 이름으로 이화여대 학생들과 의과대학생, 교수, 약사, 간호사, 직원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지로 해외 의료선교를 다녀오곤 했다. 모든 것이 열악했던 구한말 43년 동안 헌신했던 로제타 선교사의 희생과 헌신에 비할 바는 못 된다. 그러나 EMC 의료선교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봉사의 감격과 더불어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의미를 되찾았다. 나는 그들이 로제타 선교사 부부의 후예들로서, 로제타 선교사에게 빚진 자로서 열악한 제3세계에 희망과 소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믿는다.

로제타 선교사가 직접 우리에게 하실 법한 말씀으로 끝맺으려고 한다.

"다들 안녕하시죠? 저는 로제타 홀입니다. 1894년 먼저 떠났던 남편 곁으로 1951년 4월 5일 합류해서 천국에 잘 있습니다. 3살 때 왔던 딸과 한국에서 폐결핵 사업을 활발히 했던 아들 부부도 와 있네요. 제가 85세의 나이로 양화진에 묻히기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삶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삶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좋으신 주님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라 정리하고 싶네요. 동시에 삶이란 예수님이 길과 목표, 진리가 되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살면서 결국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구에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에서 여러 일들을 하지만 '항상 있는 열매(fruit that will last)'는 일 자체보다는 관계에서 옵니다. 주님이 섬기셨던 태도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변과 친구들을 대하고, 실의에 빠지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며 지지해주고 돕는 일입니다.

삶이 실망도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고, 좌절도 찾아오겠으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오실 때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구에서 살 때 힘을 내십시오. 참 포도나무이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20201108-1318□-□□_□□□□□ 20. 11. 6. □□ 7:41 Page 8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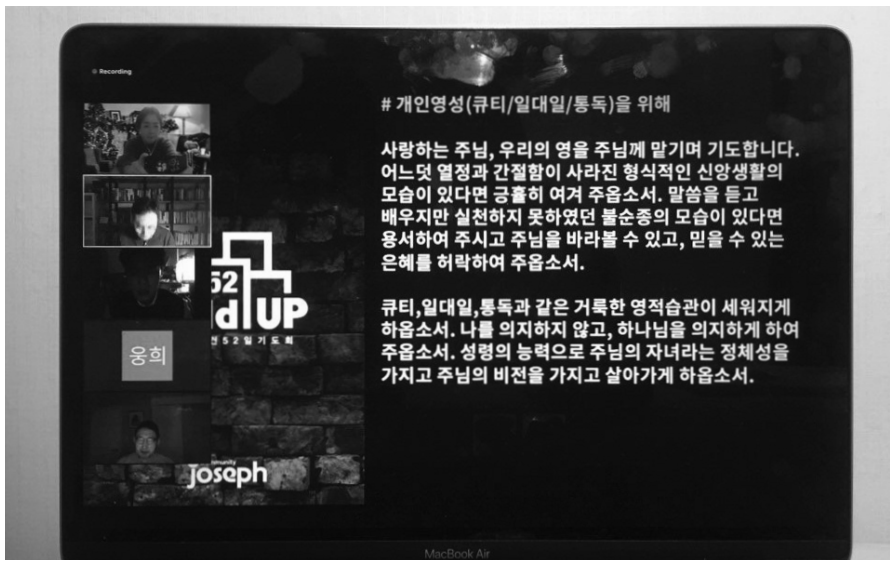
요셉공동체 영적성벽 재건 52일 기도회 'Build Up'

결국 믿음대로 된다!

1년 전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보였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큰 충격과 마음이 찢기는 눈물을 흘렸다. 그분의 죽음이 나 때문이었고, 그분이 나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시려고 모든 치욕과 수치를 참으시며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고 놀라운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의 정해진 죽음을 알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아버지를 부를 때 참을 수밖에 없었던 마음은 어떤 고통일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실까? 수많은 질문 앞에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1년 동안 내 마음속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고, 그 마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한국에서 신학교에 가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닥쳤다.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행정준비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연이어 취소되는 비행 일정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분명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때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마음이 길어지는 기다림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면 왜 가만히 계실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하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모든 상황과 시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을 나의 계획대로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의 크기와 비교하며 불평했다.



장해연 자매(요셉공동체)가 기도회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길 잃고 방황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Build Up 기도회를 허락하셨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회복되어야 할 마음',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등 그날그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옆에서 나의 보폭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

나에게 Build Up 기도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내 안에 깨지고 다듬어져야 할 돌덩어리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 순간조차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을 의지하려 했던 나의 속마음을 깨닫는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 같다. 진리의 빛 앞에 모든 어둠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사 49:16).

매일 밤 10시 요셉공동체 목사님과 전도사님, 멘토님들과 지체들이 다 함께 외치는 믿음의 선포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믿음대로 된다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장해연 자매(요셉공동체)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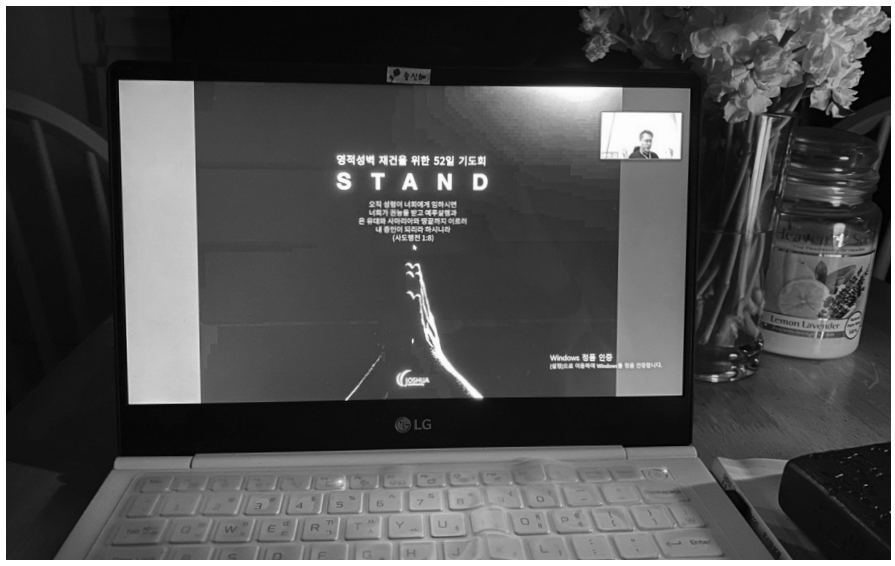
여호수아공동체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

나도 다윗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52일 동안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자는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이하 STAND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STAND 기도회 처음 3일은 정말 좋았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적이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STAND 기도회가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았다. 기도회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는 않았다. '자리라도 지키자'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STAND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다. 코로나19로 처음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기 직전 들었던 설교 말씀이었다.



송신혜 자매(여호수아공동체)가 STAND 기도회를 통해 다윗처럼 예배드리기를 소망했다.

"다윗은 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삼하 6:14~16).

하나님의 궤를 옮기며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과 너무 기쁜 나머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추며 예배드리는 다윗과 그 모습을 보며 웃는 미갈에 대한 말씀이었다.

"당신은 다윗인가요? 미갈인가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의 기도가 떠올랐다.

'하나님, 저는 미갈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이것 보세요.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언제나 같을 거예요!'

그때의 기도가 생각나면서 내가 STAND 기도회에 참여하는 동안 미갈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끄러웠다. 내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느슨해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다. 더불어 STAND 기도회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혼자 드리는 기도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AND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TAND 기도회가 중반이 지났다. 무너져있는 나의 영적 성벽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한다. 끝까지 STAND 기도회에 참여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 송신혜 자매(여호수아공동체)

20201108-1318□-□□_□□□□□ 20. 11. 6. □□ 7:41 P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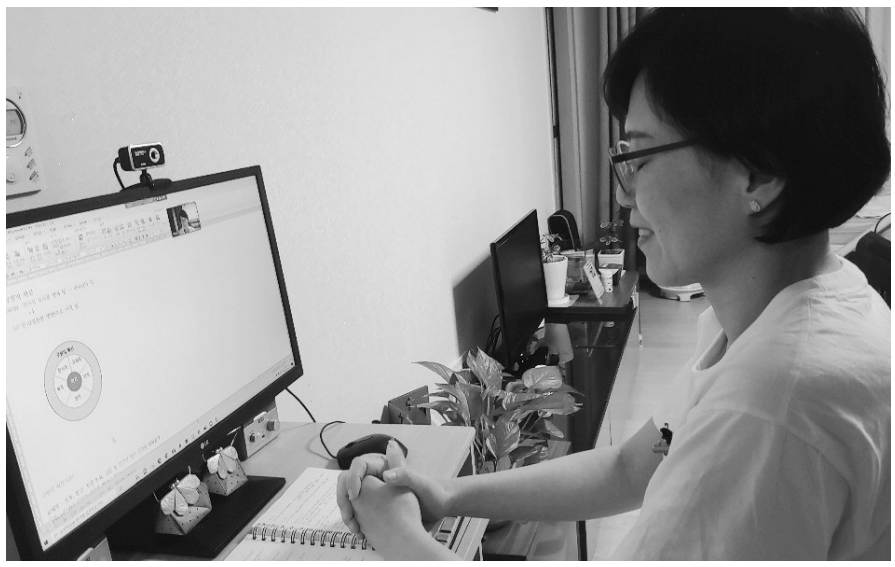
코로나19, '비대면 사역'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일대일제자양육

함께 성장한 일대일 제자양육

내가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과정을 수료한 것은 2년 전이다. 그러나, 직장 업무와 가사, 자녀 양육의 핑계로 한 번도 동반자를 양육하지 못했다. 몇 차례 강동 온누리교회 일대일제자양육사역 팀장님의 제안이 있었지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올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나와 꼭 맞는 동반자 자매가 있다는 팀장님의 권유로 첫 번째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교회에서 대면사역을 중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일대일제자양육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비대면으로 일대일제자양육을 해도 좋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 또한 얼굴을 마주하는 일대일제자양육에 익숙한 터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일대일제자양육이 원활히 이루어질까 걱정이 앞섰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도 신앙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국에 새신자는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껴져 기도로 양육을 준비했다. 우리는 2월 16일 첫 만남 이후 4월 26일부터 줌으로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위명순 성도(강동 온누리교회)는 비대면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동반자와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했다.

약간의 우려와 달리 자매님은 첫 만남 이후 일대일제자양육이 중단된 두 달여 동안 교재를 전부 읽어보고 과제까지 성실히 작성해 두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성경을 찾아가며 과제를 모두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이 자매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교육을 해주신 송재호 목사님께서 "일대일제자양육은 성경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며 삶 속에 신앙이 녹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던 것이 떠올랐다. 화면에서 서로의 얼굴이 나오면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지난 한 주간의 일상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줌으로도 허심탄회하게 삶을 나누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자매님과 직장 일, 가족, 친구 이야기 등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 자매님은 친정 식구 중에서 첫 번째 크리스천이다. 나도 25세부터 주님을 영접했기에 자매님의 질문 대부분이 내가 겪었던 경험들이라 공감할 수 있었다. 자매님은 "올해 제일 감사한 것은 비록 늦은 나이지만 주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라고 간증했다. 첫 일대일 양육을 하는 동안 자매님과 내가 '함께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어서 뜻 깊고 감사했다.

얼마 전에 자매님이 세례를 받았다. 코로나19가 한창 심할 때라 세례식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다. 일대일제자양육은 끝났지만 요즘도 친구처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무엇보다 자매님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키워나가기를 기도한다. 또한, 순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동체의 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자매님의 신앙이 굳건하게 자라서 친정 식구들 모두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은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이번 비대면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깨달았다.

/ 위명순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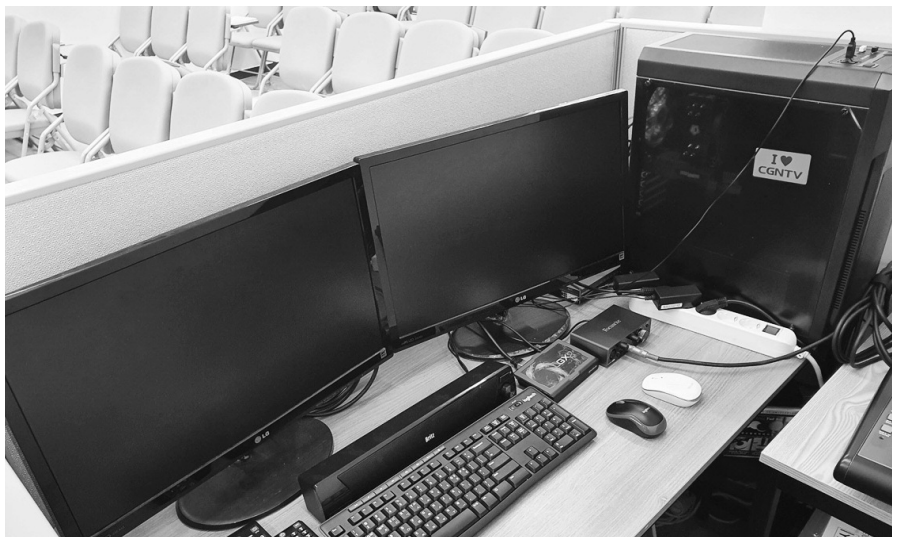
코로나19, 'CGNTV'와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

I ♥ CGNTV!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았다. 그런데 CGNTV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나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경기도 의정부로 인도하셔서 개척목회를 하게 되었다. 전도가 어려울 때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소망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알코올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었다. 그러다 코로나19를 만났다. 영상 예배 시스템이 하나도 없던 우리 교회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평일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교회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CGNTV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에 영상 예배 장비와 노하우를 지원해주는 CGNTV의 '작은 교회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 대상교회로 선정됐다.

CGNTV가 실시한 작은 교회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 덕분에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성도들은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서 속상했지만, 오히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한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예배를 완강히 거부하시던 어머님의 마음을 영상 예배가 열었다.



고상원 목사(의정부 예수소망교회)는 CGNTV의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로 달라진 사역 현장에 잘 대응하고 있다.

또 올해 성경학교는 비대면 가정성경학교로 개최했다. CGNTV에서 지원받은 캠코더로 찍고, 컴퓨터로 편집하면서 채팅으로 아이들과 소통했다. 성경학교를 마치는 날 아이들이 "지금까지 했던 성경학교 중에서 올해가 가장 좋았다"고 고백했다. 코로나19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상 예배와 가정성경학교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다.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CGNTV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셨다. 많은 후원자들과 CGNTV를 통해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 이 자리를 빌려 CGNTV와 후원하시는 성도님들, 온누리교회와 이재훈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우리 교회 방송실 컴퓨터에는 'I ♥ CGNTV'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나는 CGNTV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CGNTV를 위해 기도할 때나, 이 스티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채워지는 시간이 된다. 최근에는 에스라 강해설교를 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다. 성전 재건은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다. 나 한 사람의 회복이 곧 한국 교회의 회복이고, 진정한 성전 재건이다.

내년에 출시될 CGNTV 미디어라이브러리 '퐁당'에도 기대가 크다. 나는 CGNTV '퐁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을 확신한다. 베타테스터로 선정되어 미리 사용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에게는 정말 필요한 콘텐츠와 기능들을 담고 있다. CGNTV는 어쩌면 이렇게도 작은 교회의 필요를 잘 알고 있는지 감탄할 따름이다.

CGNTV를 만나고 예수소망교회는 월 10만원씩 CGNTV를 후원하기로 했다. 후원받는 형편에 무슨 후원이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CGNTV 후원이 성전 회복을 위한 예물의 시작이라고 믿는다.

/ 고상원 목사(의정부 예수소망교회)

20201108-1318□-□□_□□□□□ 20. 11. 6. □□ 7:41 Page 10

지난 6일 예손 전시회가 열린 드림갤러리에서 예손 작가들과 축하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예손(YESON)"展 개최

11월 29일까지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미술작품전 "예손(YESON)"展(이하 예손 전시회)이 11월 6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드림갤러리(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에서 열린다. 이번 예손 전시회는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 직업재활시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예손 작가 20여 명의 작품 180여 점이 출품 및 전시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예손 전시회 개최를 축하하는 오프닝 행사가 있었다.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 대표이사의 격려사, 최선영 작가(예손) 감사말,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영범 대표이사는 "이번 예손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손 작가들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상황 속에서 어렵게 열매 맺은 작품"이라며 "예손 작가들에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인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하고 격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선영 작가는 "예손 친구들과 함께 여러 번 전시회에 참여해봤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그림으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2-985-360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전 온누리교회 '러빙유 전도집회'

11월 22일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 본당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웃초청예배 '러빙유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11월 22일(주일) 대전 온누리교회 6층 본당 2부(09:00), 3부(11:30), 4부(14:30)와 세종교육관 본당 2부(11:30)에서 진행된다. 이웃초청예배 러빙유 전도집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러빙유 전도집회는 김상수 목사(대전 온누리교회)의 설교, 게스트 특순과 간증, 결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게스트는 '같이 걸어가기(염평안, 임성규, 조찬미, 대표곡 요게벳의 노래 등)'와 '박위 형제(유튜브 WERACLE 채널 운영자)'이다.

김상수 목사는 "러빙유 전도집회를 통해 마음에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부채탈출119: 청장년 부채 해결 프로젝트'

11월 30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신청

사회선교본부에서 '부채탈출119: 청장년 부채 해결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부채탈출119는 전문기관의 상담, 법률 자문을 통해서 개인 및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성도 혹은 온누리교회 성도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11월 30일까지 이메일(skyaiaman@naver.com)이나 팩스(02-6455-2644)로 보내면 된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되고, 1대1로 진행된다.

문의: 010-2636-3777, 02-3215-3434

온누리 도서관 대출 및 반납 재개

11월 22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온누리 도서관이 11월 22일(주일)부터 재개된다. 도서 및 DVD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 열람은 할 수 없다. 온누리 도서관 운영 시간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온누리 도서관에 입장할 때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체온측정 및 방문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온누리 도서관은 온누리교회 기독문화전시관(구 쌍용공원 EM전시관) 내에 있다. 문의: 02-749-3110

'STOP! 말라리아' 캠페인 완료

NGO 더멋진세상, 11월 24일 창립 10주년

NGO 더멋진세상이 실시한 'STOP! 말라리아' 캠페인이 완료됐다. 이 캠페인은 말라리아 감염예방을 위하여 극빈국 가정에 모기장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0월까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국생마을에 모기장 3백5십여 개를 전달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이 오는 11월 24일 저녁 7시 30분에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감사예배는 NGO 더멋진세상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이재훈 담임목사, 김광동 대표, 현지 사역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온누리세계관학교 수강생 모집

11월 13~12월 4일 매주 금 오전 10시

온누리세계관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된다. 온누리세계관학교는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부'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11월 1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3724-7666

두란노어머니학교 '어머니 P.P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어머니 P.P(Power Prayer)기도회'를 실시한다.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어머니 P.P기도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일.하.세.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일.하.세.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1월 14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기독교적 직업관, 문화관, 재물관, 성공관 등을 교육한다. '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일터 문화', '일터에서의 성공', '일터와 재물', '일터에서의 대인관계', '일터에서의 신앙성장'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4122-7255

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 온라인 와이미션 1기

요코하마, 야치요 온누리교회 성도 41명 수료

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가 온라인 와이미션 1기를 실시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줌(ZOOM)으로 진행된 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 온라인 와이미션 1기에서는 요코하마와 야치요 온누리교회 성도 41명이 수료했다. 일본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지역, 선교 역사 및 인물연구'를 주제로 특강도 했다.

김인경 선교사(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 협력과 선교 동원에 차질을 겪고 있는 중에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개발 및 제공이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서빙고

가정사역
박상용
박수영
방선영
신진균
함광민

강서
고범석
김민주
김보민
김영훈
황경희

강촌
강혜성
김재욱
노숙원
이운섭
전명금
전주현

고양은평
김덕숙
김미화
김혜선
은성기
이정희
이진원

관악금천
강영미
오영주
유충렬

광명
신능호

노원
곽선혜

동대문중랑
양귀덕
임근삼
임현수
조경화

동작
김수연
신미자
윤승완
함경진

마포
김성일
남선희
박수연
박재홍
서호성
장영훈
정규섭
홍기철
황윤정

북누리
김은희
정지형

서대문
박민영
신호식
윤선희
이주경
이태훈

서빙고
백지선
전은정
조연서
채명진
한미현

성동광진
김민지
김성현
송수자
신경아
신성준
이명아
이민용
이정민
조은희
최현정

성북
김용섭
이병숙
전승표
조일진

신용산
김성종
김송현
김종헌
오연성
이유진
이점례
정연태
최은경
최현숙

양천
김정진
김형민
주혜원

여의도
조영선

영등포구로
박미자
이가영
이찬희
이혜영
최석재

예수사랑부
김병철
유승덕

용산
김은숙
송진현
이윤성
최혜연
황진영

이수
고광호
김대엽
김수아
스즈키미호
우정서
이해분
홍정화

이촌
김나영
김진아
오지혜
이후남
지광환
최수창
한수진
황종성

일산
박건희
정윤주

중종로
남순임
박장호
송승철
이창복
임영지
조미경

한강
김민철
박혜정
이원섭
이장순
이정인
정창희
한세훈
홍성필
황찬우

S브릿지
강은애
변성용
심윤정
안성준
우수미
유소라
윤지영
이수연
이정은
이혜진
조수정

■양재

강남A
구준우
김순정
김정은

강남C
고평곤
정 현

강남D
강정모
권지현
이호철

경기A
김상배
이지영
정금수

분당A
지재욱

서초A
이옥희

서초B
박경희

양재
강경숙
김민경
김선희
김순옥
김일홍
김충한
김흥수
남동우
민성혜
민진수
윤범진
정연아

송파A
고명실
김재현
이재신

송파B
정봉근

20201108-1318□-□□_□□□□□ 20. 11. 6. □□ 7:41 Page 11

▌부모맞춤전도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 간증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 손승희 성도(상해 온누리교회)

올해 6월 초, 친정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다. 내가 도착한 다음 날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나는 자가격리 중이었기에 아버지의 임종도, 장례도 지킬 수가 없었다. 여러모로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같이 귀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많이 당황하고, 슬프고, 혼란스러웠다.

그 후에는 중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정책으로 상해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본의 아니게 친정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홀로 되신 어머니는 슬픔이 크셨다. 허전하고 쓸쓸하다고 하셨다. 그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부모맞춤전도 '행복드림콘서트' 광고를 보게 되었다. 나는 홀로 되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행복드림콘서트 참가를 신청했다. 8월 24일 열리기로 한 행복드림콘서트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두 달 정도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행복드림콘서트가 재개되기 전에 상해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컸다.

9월 26일 상해로 가는 전세기가 뜬다는 소식을 들었다. 탑승허가 통지를 받았다. 행복드림콘서트를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고 싶은데 이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져만 갔다. 그런데 9월 25일 맞춤전도집회 영상이 업로드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정말이지 너무 놀랐고 기뻤다.

나는 상해로 떠나기 몇 시간 전인 9월 26일 새벽 어머니와 함께 행복드림콘서트를 시청했다. 영상을 보시고, 카드와 선물을 받으신 어머니가 아버지 생각을 하시며 우셨다. 이 좋은 것을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한다며 슬퍼하셨다. 어머니는 복음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결신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어머니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 보내셨다고 믿는다.

행복드림콘서트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음에 심어주신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자라 열매 맺어서 외롭고 쓸쓸하신 어머니가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여생을 보내시기를 기도한다. 수고해주신 맞춤전도사역팀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이지영 조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성사역 큐티스쿨 수료 간증

큐티인생을 살기로!

/ 박예진 성도(김포공동체)

큐티라는 말을 10대 때부터 들었는데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도 말씀을 읽고 개인기도생활을 했지만 큐티가 왜 중요한지, 왜 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큐티스쿨 1주차 강의부터가 충격이었다. 내 삶의 모델은 예수님, 내 사역의 방향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런데 큐티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고,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기 때문이다. 전에 "큐티하면 성경 다독과 깊은 기도를 경시하기 쉽다", "큐티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큐티를 오해하고 있었다. 큐티를 조금 더 깊고 더 잘하기 위한 주의사항 같은 말이었는데 나는 큐티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다.

큐티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큐티를 할 때 행복했나?' 생각해보았다. 이전까지는 큐티를 하다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 반갑고, 신기하고, 좋았던 적은 있지만 행복함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큐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큐티스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에게 육신의 식사는 차려주면서 영의 양식은 먹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나의 자녀들은 아직 아기들이라 예배드림이 무엇인지, 큐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아침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연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믿고 기대한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며 내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아내로, 엄마로, 성도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마다 매 순간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이다.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동시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것이다.

큐티스쿨은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큐티인생을 살기로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큐티를 통해 내 인격에 열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일대일제자양육의 참맛 '나눔'

/ 박삼손 선교사(온누리M미션)

나는 90년대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서점에서 처음 봤다. 당시 나는 청년부 전도사였기에 좋은 성경공부 교재를 찾고 있었다. 일대일제자양육 교재가 참 좋은 교재라고 생각해서 혼자 열심히 예습해서 청년들을 가르쳤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소속 선교사가 되어 동아시아 A국에서 사역할 때도 나는 부지런히 일대일제자양육을 홍보했다. 내가 목회하던 현지인 교회에서도 일대일제자양육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야말로 QT와 일대일제자양육이 나의 목회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더욱 힘 있게 해줬다.

나는 지난해 동아시아 A국에서 추방되었다. 지금은 국내 이주민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면서 온누리교회에 등록해야 했다. 온누리교회의 정신이나 철학이 익숙했지만, 새삼스레 온누리교회 새신자등록 과정을 거치고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시작했다.

나를 양육해주신 박 집사님은 신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과 삶을 나눠주셨다. 박 집사님의 나눔이 내게 큰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왔다. 일대일제자양육의 참맛은 성경공부가 아니라 나눔이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할 때는 성경에 관한 지식과 구원의 도리를 어떻게든 동반자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안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동반자에게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나눔을 통해 동반자는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제 나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일대일제자양육이 꼭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일대일제자양육을 나누고자 한다. 내가 국내에서 이주민들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고대한다. 나에게 아주 귀중한 사역도구인 일대일제자양육이 한층 더 깊어져서 내가 만나는 모든 동반자들이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을 찬양

/ 김민아 성도(강남D공동체)

나는 어릴 적 오빠를 따라 동네 교회를 2~3년 다닌 것이 전부였다. 대학 시절 잠시 가톨릭 신자로 지냈지만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선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이 4년 전 온누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송두리째 바뀌었고, 갓 태어난 아기와 다를 바 없는 새신자 단계부터 새롭게 배우고, 깨닫고, 변화하는 과정을 몸소 경험했다.

온누리 스쿨을 통해 신앙을 키우고 안목을 넓히고자 결심한 시점에 유독 창조신앙아카데미 과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 이유는 신앙의 첫 걸음을 떼던 새신자 교육에서 창조과학의 증거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내 딸과 초등부 친구들을 창조신앙스쿨에 참여시키면서 정작 나는 창조론을 설명할 미천한 지식조차 없었다. 그래서 창조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 강의를 듣게 되었지만 첫 강의부터 결코 쉽지 않았다. 이제껏 신앙이란 머리로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창조신앙아카데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신앙을 지키는데 있어 그 근본이 되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창조과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DNA 구조와 같은 설계도는 창조주의 계획 없이는 불가능하고,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과학적 사실들과 진화의 방법으로는 바뀔 수 없는 유전자 구조, 지구의 나이 등을 이해하며 지금까지 진화론적 관점으로 성경에서 믿고 싶은 부분만 취해 믿었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창조신앙아카데미 과정은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그 뜻을 좇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를 널리 알리는 일에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코자 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고 넓은 사랑을 찬양하며, 많은 연구와 자료 정리, 교육에 힘써 주신 창조신앙아카데미 강사님들과 총무님께 감사드린다.

20201108-1318□-□□_□□□□□ 20. 11. 6. □□ 7:41 Page 12

장로칼럼

그 땅의 느헤미야들을 길러내는 일

이승배 장로
(2000선교본부,
인천 온누리교회)

현대 선교는 18세기 리암 캐리로부터 시작된 해안선교시대, 19세기 허드슨 테일러로 대표되는 내지선교시대, 그리고 20세기 신학자 랄프 윈터 등의 미전도종족, 전방개척선교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21세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또 다른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비롯한 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주요 종교들의 영향력이 좌우됐다. 제국이 확장될 때는 감염병이 새로운 사회로 전환되는 보이지 않는 촉매역할을 했다.

부족한 과학지식으로 정체를 알 수 없었던 혹독한 감염병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공동체적 나눔과 사랑실천으로 제국과 종교권력을 무너뜨렸으며, 시민사회로의 길을 열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세기 말 국내로 들어온 많은 의사 출신 선교사들은 매년 콜레라로 고통 받던 조선 사회의 방역표준을 만들어줬다. 또한 조선 청년들의 멘토가 되었다.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조선 청년들이 1918년 말 스페인독감으로 14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족을 구하고 진리의 깃발을 들었다.

온누리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전방개척지역 선교사를 허입했다. 공동체가 미전도종족을 입양하고 선교사 파송 및 기도, 후원, 아웃리치 등으로 선교사들과 함께 많은 선교지에서 자전, 자치, 자립하는 교회의 모델을 세워나가고 있다. 온누리교회 개척 당시 선교사 입국금지 국가가 약 30여개 국이었는데, 지금은 100여개 국으로 늘었다. 전통적인 선교사 신분으로는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에는 C국과 I국에서 많은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철수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선교지 봉쇄령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왔다. 이에 2000선교본부에서는 예견된 21세기 새로운 선교의 물결, 초연결시대의 선교를 준비하며, 온누리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모든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온누리교회 35주년 온라인 선교간담회'를 개최했다. 온누리교회 선교의 현재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연합과 협력',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이주민선교와 난민선교'를 주제로 선교사들의 발제 및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선교사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변화와 대응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디지털 사역의 일상화, 둘째, 소그룹 제자훈련과 가정중심 사역의 확대, 셋째, 현지사역자 중심으로 이양촉진, 넷째, 협력 및 융합선교의 강화, 다섯째, 긴급구호 및 개발사역의 필요성, 여섯째, 난민 및 이주민사역의 새로운 전략 모색이다. 그런데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셨을까?"

다니엘서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예언같이 감염병도 더욱 빠른 확산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온라인 및 디지털 사역이 가능한 기술적 바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든 이동이 제한되고, 모든 예배가 금지된 대부분의 선교 현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도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및 식량 구호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20세기 선교사들이 질병 방역과 교육 보급을 시작으로 수많은 조선의 느헤미야들을 길러냈던 것처럼,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공동체 결연 선교사를 도와서 선교지의 극심한 어려움에 주목하고, 그 땅의 느헤미야들을 길러내는 장기적인 일에 헌신하기를 바란다.

권사칼럼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양차심 권사
(신용산공동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갔다. 언니와 나는 늘 가족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꿈에서 십자가를 보았다면서 교회에 나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깜짝 놀라고 감사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다. 낮에는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철야기도를 하셨다. 나는 가족구원을 위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서도 변함없고 순순한 어머니의 신앙이 답답한 날들도 있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교회에만 매달리는 게 싫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 삶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의지할 대상이 오로지 주님밖에 없으셨던 것 같다.

어머니가 깊은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기도제목이 하나 생겼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교회를 세우고자 빵 한쪽도 못 사드시고 일하시면서 1천 원, 2천 원 금식한 밥값을 모으셨다. 주일에 일을 하게 되면 그날 번 돈을 모두 모으셨다. 그렇게 푼돈을 몇 십 년 동안 모으셨고, 아버지 몰래 나에게 맡기셔서 관리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어머니가 존경스럽고 감사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는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다. 오랜 시간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많은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교회를 짓기로 했다. 작지만 어머니의 귀한 마음이 담긴 헌금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어머니의 기도로 탄탄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가정에는 또 하나의 기도제목이 있었다. 막냇동생이 20대 중반부터 가족들의 끊임없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단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동생이 다니던 그 교회는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교회다. 가정생활에 개입하고, 개인의 모든 삶에 간섭하며,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동생은 그렇게 교회에 의해 통제된 삶을 살아가며 가족들과 20년 넘는 세월 동안 남처럼 지내왔다. 어머니는 매일 동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 교회가 바르지 않은 교회임을 만방에 알려달라고 기도하셨다. 많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자 가족들은 기도의 끈을 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막냇동생을 위해 기도하셨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이라도 하신 것일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 동생이 그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몸과 마음이 병들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지만 하나님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동생과 동생의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 교회는 매일같이 유튜브와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제껏 감추고 있던 그 교회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세상에 폭로되고 있다.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실감한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길고 지루한 영적싸움을 하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 신실하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

신앙에세이

두려움 극복하기

홍기완 목사
(서초C공동체, 하나
공동체 담당)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딘 박사는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처음으로 느끼는 두려움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떨어지는 두려움'이다. 모태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 밀려서 떨어지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둘째,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다. 모태는 조용했는데 세상에 나오니 각종 소리가 들려서 두려운 것이다. 셋째, '버려지는 두려움'이다. 모태로부터 이탈되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두려움과 씨름하며 살아간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르다.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성경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 3장 10절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했다.

타락하기 전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을 느껴본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근본적인 감정이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도중에 겪었던 한 사건이 나온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을 때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 여러 날을 표류하고 있었다. 배에 탄 모두가 큰 두려움 속에 절망하게 되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되찾게 해준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행 27:25).

이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다. 유라굴로 태풍이 아무리 두려워도 그들을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두려워진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절망적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두 구원해내실 것을 믿었다.

두려움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어떤 두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201108-1318□-□□_□□□□□ 20. 11. 6. □□ 7:41 Page 13

크리스마스 선교사 자녀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방법

1. 선물 준비 방법
   1)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가 주관해서 다락방(순)에서 준비합니다.
   2) 주소 확인: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합니다.(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3) 편지쓰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 편지에 반드시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해서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선물준비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실용적이고,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준비해주십시오.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를 포장하시면 됩니다.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해서 11월 중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서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① 자녀는 고3 및 12학년(2002년생 이후 출생자)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께 '선교사 자녀 선물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사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모자, 책(동화, 위인전, 교양 만화, 학습지 등).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선교사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3. 보안지역 유의사항

1)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
   ※보안지역으로 보내면 기독교 관련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시고, 사용하실 경우 보안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용어와 보안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 리더십들에게 메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2) 보안지역 안내
   ① 공산권
   ② 이슬람권
   ③ 힌두교권
   ④ 불교권
   ⑤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를 포장해서 선물을 발송합니다. 보안지역(수신주소가 선교단체로 되어있음)의 경우에는 소포를 포장해서 소포비와 함께 선교단체로 발송합니다(예수전도단, YWAM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4. 문의

2000선교본부: 김지은 간사
02-3215-3208, ov2000@gmail.com

5. 우체국 요금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 종 추적(행방조사 등)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나 우체국 대표전화(1588-1300)로 문의 바랍니다.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3층	031-336-1042
비전빌리지 훈련팀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04384)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1길 54번지	02-796-9700
더멋진세상	(04553) 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9, 501호	02-2271-2246
바울 선교회	(5493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61 2층	063-254-8418
빌리온 선교회	(0876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18 2층	02-879-1191
알타이 선교회	(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22, B01호	02-576-8503
중동 선교회	(139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0, 우정타운 703호	031-424-2062
중국복음선교회	(04516) 서울시 중구 정동 25번지	02-778-3626
BEE KOREA	(069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Cornerstone (모퉁이돌)	(04410)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41-6	02-796-8846
FMnC 선교회	(0669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 세중빌딩 4층	02-848-6251
GBT 선교회	(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신한데뷰 오피스텔 406호	031-421-5324
GMF 선교회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46-25	02-2653-4270
GMP 개척 선교회	(03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25	02-337-7191
GMTC 선교훈련원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02-2649-3197 070-4066-0114
GO 선교회	(32564)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2층	041-852-1040
GP 선교회	(058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02-443-0883
HOPE 선교회	(0879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90 B01	070-4006-5300
Inter-CP 선교회	(04386) 서울특별시 용산우체국 사서함 120호	070-8787-8800
InterServe 선교회	(136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070-4352-6510
OM 선교회	(136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 현대빌딩 5층	031-698-2372
OMF 선교회	(065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언빌딩 2층	02-455-0261
SEED 선교회	(0668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68, 202호	02-521-0791
UPMA 선교회	(08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한국세계선교협의회 4층 UPMA	02-815-4052
WEC 선교회	(067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7-17 숭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08814)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사)예수전도단 / 문의가능 / 물품 공동체 직접 발송	02-322-0563
안산M센터	(1524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온누리M센터	031-491-9650
CCC(한국대학생선교회)	(08342) 서울 종로구 1가길 2-8	02-397-6200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응원해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담긴 선물은 선교사 자녀들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 이경희 목사(2000선교본부)

선교사가 성도님들께 보내는 편지

"든든한 가족들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 가족은 남아시아 M국 지방에서 사역했었습니다. 워낙 현지인들만 사는 지역이라 한국 기준으로 그 흔한 슈퍼마켓 하나 없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시간을 보낼 때, 저희 아이들은 동네 아이들과 구슬치기, 자치기, 땅따먹기, 고무줄놀이를 하고 자전거를 타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들은 활동적이라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니까 현지에서 구입한 자전거가 망가지기 일쑤였습니다.

공동체에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락방장님은 선물을 보내실 때마다 친절하게 물어보십니다.

"선교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보내드릴까요?"

한번은 킥보드를 너무 타고 싶어 하는 아들을 위해서 성탄선물로 킥보드를 부탁드렸습니다. 공동체에서 정말 킥보드를 선교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운송비가 킥보드 가격만큼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킥보드를 받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웃들은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정성스런 선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가장 힘들 때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반대로 가장 감사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늘 든든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노원공동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Gyan 선교사(본부사역)

20201108-1318□-□□_□□□□□ 20. 11. 6. □□ 7:41 Page 14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말씀 앞에서 울고 웃다

둘째,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8절).

율법을 알아듣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문화와 언어에 있어서 이방인과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세대들에게 율법책은 외국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그들이 늘 쓰고 있는 이방 언어 혹은 아람어로 통역해서 설명해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깨닫게 해줘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라가 양육한 13명의 레위인들이 그 일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과 말씀을 깨닫는 일이 우리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부흥의 절정, 회개하고, 기뻐하기

부흥의 절정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9절).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어떤 눈물이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서글프고 힘들어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부흥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왜 포로 기간이 있는지, 왜 코로나19 기간이 있는지를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장난치고, 서로 부대끼며 공동체를 경험해야 할 우리 자녀들이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의 패역함을 놓고 슬피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를 경험해야 그 이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통회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10절).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돌이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함께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참된 부흥의 절정은 말씀 앞에서 울고, 말씀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뻐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부흥의 열매, 말씀 실천과 사회의 변화

마지막 부흥의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사회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날 수문 앞 광장에서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듣고 회개의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험을 한 그 이튿날 리더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특별 성경공부를 또 다시 했습니다.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13~14절).

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절기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일곱째 달 즉시 실천해야 할 것은 초막절을 깨닫고, 모든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지시하는 일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예전에는 지키지 않았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예전에 끊지 못했던 것을 끊게 되고, 실천할 수 없었던 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초막절이 의미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사회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변화이자 사회의 정화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과거 역사에서 왜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사회의 변화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 사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사회도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되고 흩어져 사회에 나갈 때 그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법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회 곳곳에서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참된 부흥을 사모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가정사역
민정섭 원희태
박삼재 박상호
양주아 이선남
이광연 조동화
이상우 오정옥
정현주 이은실
최문정 정미선

강서
김보민 권정인
김영훈 김동섭
황경희 노진영

강촌
유지형 조시연
전명금 김연희
전주현 이경민

고양은평
김덕숙 김준잠
이정희 정해영
이진원 구병삼
정일영 문성기

관악금천
YU CHUNGRYEOL
김주형
김재율 주수일
윤 문 홍해남
허인숙 김금희

김포
비크럼채트리
박수웅

동대문중랑
권태훈 성정대
임근삼 정진욱
임현수 조지홍

동작
윤희랑 임채열
이창수 손수용

마포
김소영 박해령
박시온 양옥경
서호성 김정렬
이현철 추진희
정규섭 유정수
정환승 유정수
한다희 양옥경
홍기철 김광훈
황윤정 배미령

북누리
김석주 양순자
김은희 정유진
김인숙 김순천
이명종 심재욱

서대문
강미란 안영미
김자원 서영주
윤선희 이상경
이신영 양미숙
이재빈 유두석

서빙고
김정옥 어원경
전은정 최윤정
조연서 이은정

성동광진
김성현 경국현
김승원 백경은
김지경 백경미
서동철 유원재
신경아 남궁호선
신성준 장창근
유충열 강세천
이명아 이영미
이민용 김혜령
이정민 박상훈
조은희 홍종숙
최현정 박진희

성북
이현영 최영섭
조일진 박소연

신용산
오영은 박희경
최은경 조진영

여의도
박은경 신용애

온누리미션
고원규 이재원
김빛나 박혜심
정은배 임은경
최영조 노규석

용산
문찬수 조지홍
송진현 정 욱
신명주 김문수
황진영 장승훈

이수
고광호 남기석
김대엽 이상준
스즈키 미호 장성란
이해분 한영준

이촌
최수창 오우상

중종로
김선경 이미영
남순임 전명숙
이종선 김문경
이창복 홍범식
정충균 조재관

태안 기도처
이하은 백승희

한강
김민철 배문기
박혜정 박미선
이원섭 이경숙
황찬우 엄찬용

한터
박성록 김춘택

공동체없음
강동엽 정승호
고병훈 박영규
국원석 손형배
김영완 곽병철
김홍중 최명림
송수자 최영주
심윤정 한지혜
유원후 이소영
이경채 김선희

OCC
김현희 한명숙

OEM
Grace Toney
김희숙
Samuel Toney
장희윤
Yoon Kim 스티브차
남지현 박서영
이윤철 김진국
이창훈
Berry Phillips

S브릿지
강은애 정연문
김문희 강은형
김희영 최순자
안현주 연미영
윤지영 송용자
이혜진 이용아
이훈진 김윤경
장정준 유영석

양재

강남A
김순천 남수경
이 경 홍문식

강남B
김양환 이진영
이경민 이준구
지상원 최종순

강남C
고평곤 조덕규
박동아 김선영
윤여진 이선희
이난희 권정미
정 현 박 윤

강남D
김현진 신연선
윤선정 박영란
이호철 김규한
추혜림 송현진

강남E
김자영 하선희
홍성준 김종근

경기A
김상배 박현규
성영민 김영례
이지영 강민정
정금수 이경희

도곡
김소현 김희경
박선남 장수진
이원주 방충선
조영순 박연신

분당A
지재욱 이경민

분당B
표은숙 최숙경

서초A
이선아 김의영
이옥희 김희숙
함진아 김경숙

서초B
강순종 신진화
심준보 정회석

서초C
박서희 성경숙

송파A
김재현 김용찬
문태열 정영환
이승철 황학림
최유림 이은숙

송파B
김태이 금 홍

양재
김정임 고인아
김종한 김사용
조현정 정명숙

푸른누리
김현우 서동윤

특별한초대
장우임 허은영

하나
허수영 김진희

Bridge33+
김기엽 정영교
김윤선 권남헌
이상현 송승환

Harmony
조재형 남윤창

Point5
곽준영 한영우
김유진 김은우
유승민 황지원
이주원 김상철
전미현 이윤정
전성남 신윤옥
지주희 최지혜
최승윤 윤희원
표민지 신숙희

대청

갈렙
이보라 이지영

여호수아
김은혜 조혜윤
나희경 김은미
문채원 권경은
박소희 주소유
엄성훈 우청석
이다정 박규남
이미라 이민정
이윤경 김애란
이은혜 김수복
이혜승 이혜옥
장민수 김 준
조준호 독고석
최지훈 김봉석
한수정 백지영

요셉
박 룻 김은희
서은호 최완석
이권종 김한호
황혜진 박민정

하늘
권세은 이주현
김태휘 류대우
류채은 이지현
이은혜 선우정아

허브
권현우 강주식
김다애 변지선
김슬기 정문선
이은찬 김성훈
이지수 손소연
정승훈 이종환
조유빈 오근현

CH630
백승덕 장문석
주 란 정경라
지민승 김영숙

J4U
심효임 이효영
정혜윤 윤혜신
한예은 최경옥

Pole2
김은재 백소영

SNS
강호균 한만협
김규황 이홍석
김지수 최은정
김형섭 송시욱
박은진 김민정
박진혁 이준호
석미경 장미경
오예린 권동희
윤재석 김성현
이규연 이경주
이미진 박가영
이준호 김광훈
이지현 백경화
이지현 김진경
이지혜 이승윤
임수빈 이은영
조현승 김진국
차평화 김정무
최원영 동두봉
최지은 이정현
허의진 김윤복
황지은 주영희

W
손순희 송기현
황예은 송기현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11월 15일(주일 서빙고 3부 예배, 양재 2부 예배)

서빙고 수료대상자: 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 양재 사랑홀

대상자: 7월 1일~11월 5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서빙고

최성석 목사반
강현정
김경란
김규리
김리나
김성환
김영옥
김옥자
김은희
김지연
김진균
김혜윤
김희대
박미옥
박석재
박성희
박아실
박진영
박진원
배성원
손영환
심우범
심재혁
옥선화
윤정희
윤현경
윤희성
이상훈
이세영
이세영
이수현
이아름
이 암
임선양
정승욱
정현주
조현경
주진경

양재

홍기완 목사반
김선희
박영숙
박은경
여한구

어린이

이기훈 목사반
강현진
김용숙
김현희
김형준
박임준
안광호
원혜경

온누리교회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셈 7층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용갑
길혜영 김기락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섭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송석근
송재호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웨슬리맥커리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최대흥 최성민 최성석 최용준
최혁중 하청훈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유영 김한국 신현민 장재원
전병천 최종현 최성규 하성희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강정모 김기범 김바울 김반석
김병철 김세현 김종영 김혜경
네트라 랜디배딩줄렉스 마주마누룽 민현식
바랏라살리 박근명 박씨마 싱루아마납
사기르 이원준 이승윤 이진이
유승덕 윤치연 임선아 장미숙
제인량 최병구 최일관 최정현
차제이미 크리스티안

◈전도사(파트)
고원규 권수진 권영현 김근희
김두일 김동규 김삼인 김세환
김승겸 김수영 김의연 김은하
김은혜 김용태 김영신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진성 김주영
김종균 김태광 김태영 김태주
김태환 김한국 나지혜 니시다토모코
노동준 노태규 민혜영 박미애
박소망 박영규 박이호 박영우
박유진 박지수 박찬양 박태훈
박현식 빌 케 배명지 백승현
서영찬 서영철 송동주 송유진
송선애 송우항 승소영 신기한
신대종 신동혁 신현아 양주영
여지휘 여현구 오국헌 오명도
오준현 오태경 오현교 용상은
우승민 우형석 윤경선 윤신혁
윤수신 윤슬기 윤지은 윤준석
윤태정 윤효정 이경건 이경아
이민희 이사무엘 이상관 이상욱
이상은 이선영 이성광 이세영
이송희 이수호 이승기 이신임
이엘렌 이용민 이웅희 이은정
이은희 이진기 이진수 이주원
이찬양 이태호 이호준 이현석
이향순 임광명 임노완 임송아
임지성 임진숙 임정민 장광석
장새힘 장윤진 전소리 정순덕
정에스더 정연상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진성희 최규종 최은영
최선재 최휘준 표명철 한영철
한용태 허루슬란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khag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의선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석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상송
박석봉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박태성 배종수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신현종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규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편무옥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덕종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권순형
곽진성 곽희준 권득한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금세종
김경돈 김관근 김관식 김광하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민찬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용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훈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상권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종현 박지수 박재두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영범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영각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상달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헌 양상식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석우 윤석주 윤영각
윤현덕 이경찬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우경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응화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구
차준한 최도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호림
하성기 하주헌 한갑수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서 원 석지혜 송효빈 신은혜
안은경 안은영 안지연 양지연
양현선 염주희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나 이예은 이예진
이혜진 정경미 정다혜 정지은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홍예은 황보승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관수
김철진 김태완 박신웅 송영동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인호 변범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우윤상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택
이정주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청훈
한현희 코바야시 메구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Lee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김경덕 김현중 남 영
박이훈 서인택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시무장로
고성환 권덕수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신중수
여훈필 우승호 이광철 이문호
이상헌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리히로
허규회 홍관희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임헌식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좌겸
김준걸 김진용 김현희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광고

CGNTV 채용공고
모집: 채용시까지
분야: 콘텐츠기획실 웹개발팀 웹퍼블리셔
자격: 관련 경력 1년 이상, 포트폴리오 제출
문의: 02-3275-9384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찬양팀 모집
모집: 건반, 베이스 각 1명
시간: 매 주일 10시 30분~13시
경력: 찬양팀 경험자 우대
문의: 김재혁 집사(010-3353-9150)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전제품 및 소형 가구, 생필품 후원요청
내용: 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주거물품 및 생필품 후원 요청
문의: 이수진 팀장(031-360-182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무료취업 지원
내용: 고령자맞춤직업 일자리 알선을 통한 재취업 지원(경비원, 요양보호사 등)
문의: 김수지 사회복지사(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IT체험존 봉사자 모집
내용: 퍼스널, 그룹형 인지훈련로봇, AI로봇, VR 체험존 활동보조
문의: 송승현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전문재능 봉사자 모집
개요 : 10시~16시, 내곡 쉼터, 전문분야(법률, 금융, 심리, IT, 건강 등)
문의: 김지예 사회복지사(02-6953-7134)

서초50플러스센터 글짓기 대회 개최
내용: 센터의 건립 응원 문구 또는 격려의 메시지 작성
문의: 변은영PM(02-579-5060)

재 정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추수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소천

■ 결혼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13:00 서빙고 본당
조준섭, 최현숙(남서울 은혜교회)의 아들
조원석(온누리교회)
이윤성, 김상경(신도교회)의 딸 이유진(신도교회)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13:00 양재 사랑홀
안철훈, 임영신(청운교회 집사,집사)의 아들
안준규(온누리교회)
최우성, 박인미(온누리교회 집사)의 딸
최민지(온누리교회)

■ 소천

10/29(목) 성동광진 심천보 집사 부친상 고 심재원
10/30(금) 도곡 이원선 성도 부친상 고 이실구
10/30(금) 송파A 김양숙 성도 부친상 고 김팔호
10/31(토) 이천선교 이영복 선교사 부친상 고 이실구
11/2(월) 양천 김수영 성도 부친상 고 김득순
11/3(화) 강남A 이지숙 성도 시부상 고 이희수
11/3(화) 분당B 김경진 성도 부친상 고 김두옥
11/4(수) 서초A 고 박영자 권사
11/4(수) 송파A 강윤경 성도 부친상 고 강창원
11/4(수) 성동광진 김인숙 권사 모친상 고 최인순
11/4(수) 서빙고 고 구본영 장로

CGNTV 후원캠페인

함께! 미디어선교

멈추지 않을 복음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3000분의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전을 나눈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미디어 선교의 미래입니다

플랫폼으로 만듭니다

기독 OTT 서비스 '퐁당' (2021년 초)

성도를 위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은 물론
교회를 위한 온라인 양육 시스템 제공으로
개인의 신앙과 한국 교회의 균형을 잡습니다.

콘텐츠로 세웁니다

어린이, 중장년 대상 유튜브 콘텐츠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에 이르는
넓은 시청자층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유튜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TV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신규후원 바로가기

특별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